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리더십 워크라운드 시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8월 30일 환자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리더십 워크라운드를 시행했다.

리더십 워크라운드는 환자중심의 병원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원내 기관장 및 부서장으로 구성된 리더그룹이 환자를 돌보는 임상 현장의 실무자 면담을 통해 안전문제를 파악하고 사전 점검을 하는 활동이다. 이번 활동에는 조성민 병원장을 비롯해 이형열 행정처장, 권범선 진료부원장, 백용해 진료부장, 진영숙 간호부장, P시일이 함께 참여했으며, 환자안전에 대한 부서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문제점 등 개선방안에 대해 소통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조성민 병원장은 “이번 라운딩을 통해 환자안전에 대해 일선의 의료진들과 직접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병원의 환자안전을 위해 전 교직원이 노력하여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자안전 주간 행사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환자 및 보호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환자 중심의 안전한 병원 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에 대한 중요성 공유와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환자안전 개선 활동을 담은 ‘함께하는 낙상·욕창 예방 활동’을 주제로 병실에 낙상예방스티커를 부착하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욕창 예방활동을 담은 각 티슈를 배부해 환자안전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직원 식당 앞에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 판넬 사진 촬영 및 사과를 나누며, ‘함께 공감하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앞으로 환자안전 예방 활동에 대한 중요성과 환자의 말에 귀 기울이며 함께 공감하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군병원 내시경 세척소독 워크숍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일 대한소화기내시경 간호학회 경인지회와 국군의무사령부 의료관리처 공동주최로 본원 4층 중강당에서 ‘군병원 중심 내시경 세척소독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은 군병원의 내시경 질 향상과 최신 정보 공유를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 20여 곳 군병원에서 내시경 소독 실무를 담당하는 군 간호장교와 간호사, 사병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세척소독 핸드온(Hands-on) 세션’을 준비하고 표준화된 세척소독 과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진정내시경 간호와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방안’과 ‘내시경실의 감염관리’ 등 내시경실 실무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군서울지구 군병원에서 내시경 세척소독과 관련된 QI 활동 사례를 발표하여 큰 관심을 받았다.



스토리

너무나 감사한 92병동 간호사 선생님들

바쁜 병동 일상에서 항상 앞장서서 환자 이송을 도와주시는 따뜻하고 열정적인 수선생님을 비롯해 내 담당 환자가 아니어도 언제나 안부 물어주고 관심 가져 주시는 친절하신 간호사 선생님들, 많은 환자를 돌보다 보면 힘들고 짜증도 날만한데 찡그리는 일 한번 없이 응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입원환자가 많아 때로는 식사도 못 하고 뛰어다니는 선생님들을 보면 걱정이 돼서 “식사하셨어요?”라고 묻게 됩니다. 저를 비롯해 모든 환자와 보호자들이 간호사 선생님들을 많이 의지하고 있으니 꼭 건강을 잘 챙겼으면 합니다.

92병동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배려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92병동은 정말 따뜻하고 밝은 병동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